

○○○○ 협회소식 ○○○○

◆ 79년 봄세미나 5월 25일 개최

- 「병원사목」 주제로 상지회관에서 -

금년도 本協會 춘계 세미나와 정기총회가 5월 25일 서울 돈암동소재 「상지회관」에서 개최하게 된다. 21번째가 되는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병원사목」을 주제로 한국 가톨릭나 사업가 연합회 프라이징거 엠마회장과 가톨릭의대 교목실장 서요셉신부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가톨릭의사협회 회원과 가톨릭간호협회(가칭) 회원이 같이 참가하게 되는데 오후부터는 합동회합을 갖고 가톨릭醫療團體相互間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오는 80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7차 아시아 가톨릭의학협회 학술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할 예정이다.

◆ 가톨릭의료인의 사명 재확인

- 78년 가을세미나 성료

光州「피정센타」에서 -

본협회 78년 가을세미나가 「병원사목」을 주제로 지난 10월 27일, 28일 이틀간 광주「피정센타」에서 개최됐다.

협회장 김창렬신부를 비롯 전국에서 54명의 회원병원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가톨릭병원 사목의 실태와 문제점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사목활동으로 가톨릭의료인의 고유의 사명완수를 재확인 했다.

27일 오후 4시 세미나에 앞서 광주 윤공회 대주교는 개최미사를 집전, 강론을 통해 「우리 교회병원은 하느님께 봉사하고 인간에게 봉사하

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어야 하는 가톨릭병원은 선교의 수단과 아울러 정신제발에 기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서요셉신부(가톨릭의대 교목실장)는 「병원사목의 새로운 방향」을 연제로 「현재 소극적이라고 평가되는 원목활동은 원목을 병원치료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가톨릭병원의 특혜라고 생각하는 오류때문」이라고 지적, 「원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임상사목 교육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금순수녀(부산 성분도병원 원목실)는 「병원사목과 수녀의 역할을, 김스테파니아수녀(대구 파티마병원 원목실)는 「병원에 있어서 수녀의 사목활동 실제」를 연제로 병원사목경험을 토대로한 발표를 통해서 병원은 본당과 교구를 초월한 전교의場이라고 전제 「병원 당국은 물론 일선사목자들은 병원사목의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원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간 참가자들은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병원사목 방법에서 탈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목활동을 통해 가톨릭병원으로서의 고유사명을 되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無療診療 실시

- 가톨릭醫協, 慶南 山淸서 -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4월 7.8양일간 경남 산청 소재의 나환자 정착촌인 성심원에서 무료진료를 실시 했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禹昌奎 관악구 의사회장을 비롯 鄭熙坤의원장 金在浩 가톨릭醫大교수 金道千 마산가톨릭의사회장등 6명의 의사가 참여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韓國가톨릭의사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심원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해오고 있다.

◆ 「幸福한 家庭運動」적극 支援

- 光州敎區 지역별로 지도神父 임명 -

광주대교구장 윤공희대주교는 「행복한 가정 운동」의 보다 원활한 보급 발전을 위해 각지역별 지도신부를 임명하는 한편 지도요원 양성비 지원을 위해 각 도시 본당에서 매월 1만원씩 부담토록한 예산지침을 잘 시행해 줄것을 요청했다.

지난 2일 교구공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한 윤대주교는 또한 현재 일시적인 사정으로 지도요원이 배치되지 못한 도시 본당에서도 전체적인 협조의 뜻으로 양성비 지원에 참여해줄것을 당부했다. 각지역별 지도신부는 다음과 같다.

- ◆ 목포지역 = 이재홍신부
- ◆ 강진·해남지역 = 정종표신부
- ◆ 여순지역 = 송현섭신부
- ◆ 광주지역 = 김성용신부 (교구지도)

◆ 自然的 가족계획등 研修

- 서울교구 평협 연수회 -

서울교구 평협은 2월 25일 명동 샤르뜨르 성바오로 수녀원에서 행복한 가정운동 1일 연수회를 가졌다.

서울시내 본당에서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가톨릭 의대교수 맹광호박사의 진행으로

- ◆ 자연 가족계획의 원리 및 장점(맹광호박사)
- ◆ 「인간 생명」회칙에 해설(최창무신부)

◆ 배란법 및 증상 체온법(김화순간호원)이라는 강연이 있었고 끝으로 영화 「생명의신비」와 「인공유산」등이 상영되었다.

○○○ 회원병원소식 ○○○

◆ 頭部撮影用 CT設置

- 서울성모병원 -

우리나라에도 頭部만을 촬영하는 컴퓨터 단층촬영기(CT스캔)이 성모병원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 설치된다.

4월중도입 5월가동을 목표로 일본으로부터 발주된 CT스캔은 일본 히타치社 제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신을 촬영하는 CT 스캔은 4대가 도입, 설치되었으나 頭部만을 촬영하는 CT스캔은 없는 실정이다.

◆ 70病床으로 增築 낙성식

- 의정부성모병원 -

가톨릭의대는 지난주 지역사회의료와 학생들의 지역사회의학실습을 담당할 부속 의정부성모병원의 낙성식을 가졌다.

이날 낙성식에는 金壽煥 추기경을 비롯, 金昌烈 CMC의료원장, 安容八의무원장 曹圭常醫大 學長등이 參席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연건평 8백평에 기본 4과와 지원과로 70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 「한국 循環器센터」設立

- 서울성바오로병원 -

韓·日 양국 정부는 지난 3월 2일 「韓國循環器센터」設立에 따른 의료기술협력조인식을 보사부에서 갖고 聖바오로病院에 韓國循環器센터를 設立키로 정식 합의했다. 이 협정조인에 따라 성바오로병원에 「韓國循環器센터」가 이달중으로 정식 발족하고 소장에는 가톨릭의대 내과

金三壽교수가 취임했다.

한편 한국순환기센터는 JICA로부터 日貨 3억圓 이상의 순환기관계 의료기재를 무상으로 원조받게 되는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제1단계는 향후 2년간 순환기 내과를 중심으로한 의료기재가 도입, 보장되며 제2단계는 3~4년간에 걸쳐 흉부의과등 순환기내과에 필요한各科別 보조기재들이 도입된다.

이밖에 韓國循環器센터는 韓日간의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초청, 의료요원의 훈련을 실시하고 日本에 훈련생을 파견, 연수케하는 의학교류도 병행하게 된다.

◆ 감마카메라導入 設置

— 서울성모병원 국내최초로 —

지난 11월 성모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設置한 最新型 Sigma - 410 감마카메라 시스템은 최신형 핵의학 診斷裝置로서 여기에는 ① 單發저격촬영장치 ② 多發저격촬영장치 ③ 全身스캔장치 ④ 감마카메라-ECG동시해상장치 ⑤ 녹화장치 및 電算처리 장치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 감마카메라의 설치로 심장순환 동태, 뇌순환동태의 파악에 있어 효율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肝 촬영등에 있어 時間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고 또 부착된 V I P 電算器를 사용하면 情報를 더욱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特別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크게 問題가 되는 肝질환의 診療에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타의료기관에서의 利用도 開放하고 있다.

◆ 신앙교육으로 참된 病院像추구

— 대구마티마병원 —

치료를 통한 선교사업을 완수해야할 사명을 지닌 가톨릭계 병원들이 복잡 다단해져가는 현대 사회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병원운영과, 사회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병원상을 심기위해 신자직원의 신앙교육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

대구 파티마병원은 그 첫단계로 전직원 4백 80명 가운데 2백 50여명의 신자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코스의 공동체목상회를 3월부터 5월까지 5차로 나누어 왜관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월 자체병원사목계획을 수립한 동병원은 그동안 신자직원들의 영적생활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음을 감안, 많은 재정적·시간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피정을 마련했다.

그런데 동병원은 공동체목상회를 도입, 병원내 각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공동체로 생활케 하는 계기로 삼았다. 아울러 동병원은 각부에서 몇명씩 차출, 피정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게하는 한편 그들이 속해 있는 부서의 중요성과 고유성도 인식케했다.

이에 따라 3월 17. 18일 제1차교육에 이어 21. 22일의 제2차 목상회에는 1차 참가자들이 기도를 바치고 간식을 보내는등 서로를 격려, 참가자간에 일치감을 느끼게 했다.

한편 3차(4월 18. 19일) 4차(5월 15. 16일) 5차(5월 21. 22일)를 기다리는 직원들은 처음과는 달리 서로 먼저 참가하려고 경쟁을 보일정도인데 예비자와 개신교인 직원까지도 참가할 희망을 보이고 있다.

5차례의 목상회가 끝나면 참가자 전원은 차별·전체별 모임을 갖고 개인의 신앙생활과 병원에서의 선교활동에 적극 앞장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소식◎◎◎◎

◆ 病床數·病院利用率 急增

— 保社部 統計 —

우리나라의 病院 및 病床數·病院利用率·평

균일원일 수등이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保社部の 統計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급격한 증가현상은 政府의 医療보장擴大施策 및 病院擴張計劃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醫療保護 및 醫療保險이 실시되기전인 76년과 비교하여 불배 醫院을 제외한 병원수는 76년에 1백 98개이던 것이 77년에는 2백 27, 78년에는 3백 1개로 대폭 늘었으며 病床數는 76년에 2만 2천 7백 92개이던 것이 77년에는 2만 6천 5백 36, 78년에는 2만 8천 8백 69개로 늘어났다.

◆ 民間病床 5,500개 增設유도

— 주요 급증대비 — 보사부 —

保社部는 내년도에 民間病床 5천 5백개를 增設하기로 결정, 民間醫療機關에 대한 稅制支援助 및 長期低利融資·商業借款의 도입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保社部는 계속 높아 가고 있는 國民醫療需要度を 감안하여 계속 순수民間醫療機關의 환자수용력을 擴張해가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우고 80년도에는 民間醫療機關으로 하여금 5천 5백병상을 新設擴大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保社部の 이와같은 방침은 國民生活水準의 향상과 政府의 강력한 醫療施惠擴大施策등으로 國民醫療需要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政府次元에서는 물론 民間베이스에서도 계속 환자수용능력을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아래 세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保社部는 政府次元에서 건립하는 工團 및 醫療취약지병원 그리고 市道立病院建立과 확충과는 별도로 民間醫療機關擴充도 계속 유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保社部는 民間醫療機關으로 하여금 환자수용능력을 이같이 擴張 유도해 나가기로 방침은 세

우고 있으나 아직 이를 위한 支援방안은 마련되지 않고있어 계속 이의 支援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15次 無醫地域 專攻醫파견

— 3백 97명 — 보사부 —

保社部는 第15次派遣專攻醫로 3백 97명을 파견했다.

지난 3월 31일로 14次派遣專攻醫의 6개월간 派遣期間滿了에 따라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파견케 되는 15次派遣修鍊은 無醫面에 2백 86명, 市道立病院에 67명, 特殊病院에 14명, 病院船에 10명, 國立病院에 14명, 그리고 赤十字病院에 6명이 각각 파견됐다.

◆ 醫協會員취업 실태집계

— 78년도 신고자 총수 13,292명 —

醫協이 78년도 會員申告書를 집계한 바에 의하면 申告者 總數는 1만 3천 2백 92명인데 이중 개업회원은 43%인 5천 6백 76명, 病院醫院근무자가 34.7%인 4천 5백 91명이며 市道別 분포는 서울에 50%인 6천 6백 63명, 부산에 10.5%인 1천 3백 99명이 분포돼 있고 10%인 1천 5백 98명이 女子다. 한편 專門醫자격취득자는 5천 5백 93명으로 집계됐다.

78년도의 會員申告를 보면 申告義務者數 1만 9천 5백 77명의 68%인 1만 3천 2백 92명(해외제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78년도 신고회원의 실태를 보면 學力別로는 醫大卒이 92.7%인 1만 1천 7백 77명, 검정합격이 5백 94(4.6%)이며 한지 의사가 3백 28명이었으며 市道別로는 서울에 6천 6백 63명, 부산에 1천 3백 99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60.7%가 분포돼 있고 기타 경북 1천 3백 54(10.2%), 전남 9백 38명, 경기 7백 52명, 충남 6

백 38 명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 세 이하가 23 %인 2 천 9 백 27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30 세 ~ 34 세 가 2 천 5 명으로 15.7 %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40 세 ~ 44 세 (14.4 %) 1 천 8 백 33 명, 35 ~ 39 세 (13 %) 1 천 6 백 56 명 등의 순서이며 60 세 이상은 8.6 %인 1 천 1 백 2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과목취득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에 2 천 7 백 44 명, 부산에 7 백 13 명 등 약 62 %가 서울과 부산에 집중돼 있고 기타 경북에 6 백 23 명 전남에 3 백 76 명, 경기도에 2 백 80 명, 경남에 2 백 41 명 충남에 2 백 21 명 등이고 그 다음 전북, 강원, 충북 제주의 순위를 보였다.

취업실태를 보면 개업회원이 42.9 %인 5 천 6 백 76 명, 병의원취업이 34.7 %인 4 천 5 백 91 명, 교직이 7 백 64 명 (5.7 %), 공무원이 1 백 83 명 (1.3 %) 군복무가 1 천 5 백 24 명 (11.5 %),

기타취업이 1 백 62 명이며 미취업이 3 백 12 명인 것으로 밝혀 졌다.

市道別 취업실태는 <별표 >와 같다.

◆ 国家的 次元에서 育成돼야

— 医療工業育成세미나 指摘 —

우리나라 醫療技術의 외형적 양상은 세계적 수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醫療機器는 거의 외국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곧 도래할 복지사회를 내다 볼때 국민보건의료의 개발연구와 의료기기 산업육성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모색돼야 할 것이 지적되고 있다.

22 일 K I S T가 국내 醫學界, 產業界 및 保社部 인사 1 백여명을 초청하여 갖인 「한국 醫療機器工業 育成에 관한 세미나」에서 洪彰義 서울 醫大教授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醫療産業」이란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醫療技術은 세계적 수

◇ 医協會員市道別 취업 실태 ◇

시 도	취업 실태							
	전 체	병의원 개업	병의원 취업	교 직	공무원	군복무	기 타 취업	미취업
서울	6,637	2,136	2,910	551	16	758	63	203
부산	1,388	714	426	36	10	142	31	29
경기	752	497	146	12	34	43	5	15
강원	266	153	75	-	11	15	9	3
충북	202	143	32	-	4	15	5	3
충남	636	374	122	29	19	79	6	7
전북	420	194	144	17	15	44	2	4
전남	937	385	246	61	26	200	9	10
경북	1,354	648	383	58	36	189	12	28
경남	541	371	95	-	13	36	19	7
제주	80	61	12	-	-	3	1	3
계 (%)	13,213	5,676 (42.9)	4,591 (34.7)	764 (5.7)	184 (1.3)	1,524 (11.5)	162 (1.2)	312 (2.3)

준에 도달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 의료기기공업은 총 1백 12개업소에서 주사기, 유리기구, 치과기계, 청진기, 분만대, 보육기(조립상태), 질경소독기, 원심분리기, 멸균소독기정도를 생산하는 낙후성을 보이고 있고 전자기기에 속하는 장비는 거의 외국에 의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日本에 있어서는 1933년 심전도를, 40년대는 전자현미경을, 60년대 초음파진단기, 75년에는 CT스캐너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도 심전도도 생산치 못할 뿐 아니라 市立강남병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장비가 98.2%를 차지, 국산기기는 겨우 1.8%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의료보험의 확대실시, 병원 이용도의 상승 및 국민의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등 성인병의 증가, 공해에 의한 질병구조의 변화등을 감안할때 의료기기의 수요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시혜의 향상에 따라 의료산업이 발달되려면 정부·의학계·공학계가 협동연구체제를 구축, 공동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医療技士 1,382名 合格

— 今年度 合格者 發表 —

國立保健研究院은 지난달 22일 의료기사합격자를 발표했다.

保研院發表에 따르면 총 1천 3백 82명이 합격했는데 각과목별 合格者는 다음과 같다.

◆ 임상병리사 = 6백 35명 ◆ 병리사 = 2백 53명
 ◆ 물리치료사 = 1백 53명 ◆ 작업치료사 = 1명
 ◆ 치과기공사 = 2백 45명 ◆ 치과위생사 = 1백 34명

◆ 國際大會 支援키로

— 올해 國內開催 4個學術大會 —보사부—

保社部는 금년도에 우리 汎太平洋再活 國際不妊手術 學關係 국제학술대회를 垂太 지역血液 國際人口會議

보사부가 지원하기로 한 국제학술대회는 4월에 개최되는 제 6차 범태평양 국제再活會議 5월에 개최되는 제 4차 不妊手術學術大會 6월에 개최되는 제 4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血液學術大會 7월에 개최되는 제 10차 국제인구세미나등이다.

保社部는 이들 국제대회의 한국개최는 우리나라의 발전상 및 醫學水準을 각국 대표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때문에 큰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판단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保社部는 이들 국제회의의 개최에 즈음하여 특히 정부 주최의 「리셉션」觀光·기념품증정 환영「아치」 및 「프랑카드」설치등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외에도 준비상황의 점검·출입국 편의제공 안내원 배치등 행정적인 지원도 최대한으로 할 방침이다.

◆ 醫療保險法 改正案 통과

— 자격 정지條項 등 신설 —

國會 本會議는 30일 政府가 제안한 醫療保險法 改正案을 保社委 및 法司委員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번 改正案의 중요 골자는 醫療機關의 지정을 醫藥團體와 협의, 일괄해서 할수 있도록하고 요양기관에서 算定基準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구등을 하였을 경우 1년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改正法條參照)

그런데 洪性澈保社部長官은 29 일 醫療保險法 改正案의 요양비 과다청구에 대한 자격정지 조항과 관련,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醫療人에게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만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 醫療심사 委員會에 회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洪長官은 이날 國會保社委員會에서 朴容萬(신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 醫保法 施行令改正案 통과

— 公 · 教 醫保法 施行令 改正案 도 —

國務會議은 30 일 醫療保險法 시행령개정안과 공무원 · 教員 醫療保險法 施行令 改正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醫療保險法 施行令 改正案의 주요 골자는 ① 당연적용 사업장을 5백인 이상에서 3백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고 ② 표준보수 월액등급을 2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30 등급을 3만 5천원에서 60만원까지의 33 등급으로 조정하여 ③ 표준보수 월액의 결정기준일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④ 본인의 일부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입원 20%, 외래 30%로 ⑤ 분만수당 본인부담금 보상금등 부가급여 종류의 확대 등이

다.

한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醫療保險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진료비 심사위원의 정수를 2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인 이내의 상근위원을 들수 있도록 함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자가 되도록함 ③ 진료비심사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分科委員會를 들수 있도록함.

◆ 保社部 職制改編 추진

— 社會 · 環境 · 醫政次官補制 신설 등 —

保社部는 최근 組織改編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우고 3개 次官補制度를 신설하는 등의 改編案을 마련중이다. 이기 成案단계에 있는 保社部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醫政次官補를 비롯한 社會次官補와 環境次官補등 3개 次官補制度를 신설하는 것으로 마련되고 있다.

또 현재의 醫政局내 管理課를 局으로 昇格시켜 企劃課, 裝備課, 施設課, 管理課등 4개 課로 편성하는 안이 마련되고 있다.

한편 社會保險局에 年金課를 신설하는 동시에 環境管理官室을 局으로 개편하는 組織改編案을 成案 중이다.

